

# 농가인구, 7%대로 떨어져 65세 이상 10년사이 2배 증가

농가인구 3백59만여명-7.5%, 농가수 1백28만가구-8.5%로 줄어  
65세 이상 고령층 26.2%로 2배 늘어,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

- 홍보부 -

**우**리나라 농가인구가 10년사이 총 인구대비 13%에서 7%대로 떨어졌다. 또 전체 농가인구중 65세이상 노령층 비율이 13.9%에서 26.2%로 증가하는 등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가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통계청이 실시한 「2002년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」결과 나타난 것인데 여기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, 정리해 본다.

## 농가·농가인구

2002년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농가수는 1백28만 가구로 나타나 전년보다 5.4%가 줄어든 7만3천여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간 연평균 감소율인 2.4%를 크게 앞질렀다. 전체 가구수 대비 농가비중은 지난 1995년 11.6%에서 2000년 9.7%, 2001년 9.1%, 2002년 8.5%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. 특·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별 농

가수 감소율을 보면 전남이 8.3%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전북(7.1%), 제주(6.9%), 충북(5.8%) 순으로 나타났다. 이처럼 전국적으로 농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최근 농업수지 악화 및 근래에 가장 심했던 태풍(루사), 집중호우, 구제역 등의 재해와 농촌의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.

또 지난해 농가인구를 보면 3백59만여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8.7%인 34만3천여명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감소폭인 4.5%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.

우리나라 총 인구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지난 92년에는 13%대였으나 97년에는 9.7%, 2000년에 8.6%, 그리고 지난해에는 7.5%로 낮아졌다. 이같은 농가 및 농가인구의 감소가 예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영농포기와 농업인의 도시전출, 겸업농가의 타산업으로의 전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.

## 농가 인구구조

지난해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97년 3.10명에서 2001년 2.91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2.80명으로 나타나 5년새 0.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이중 2인 가구 비중이 43%로 가장 높았으며 1~2인 가구 비중이 점차 늘고 3인이상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.

농가의 연령계층별 구조를 살펴보면 15세미만의 유년층 인구(10.7%)와 15세에서 64세 인구(63.1%)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65세이상의 고령층 인구비중(26.2%)은 계속 늘어났다.

## 농업 경영구조

전체 농가중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67.3%(86만2천가구)로 전년대비 2.0% 증가하였으며 전업농가는 지난 95년 56.6%, 2000년 65.2% 등으로 해마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. 이는 농가내 농업이외의 일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의 감소와 농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된다. 농업과 농업이외의 일을 함께 하는 겸업농가는 41만8천 가구로 전년대비 10.8%가 감소하였으며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.7%로 나타나 전년대비 2.0%가 줄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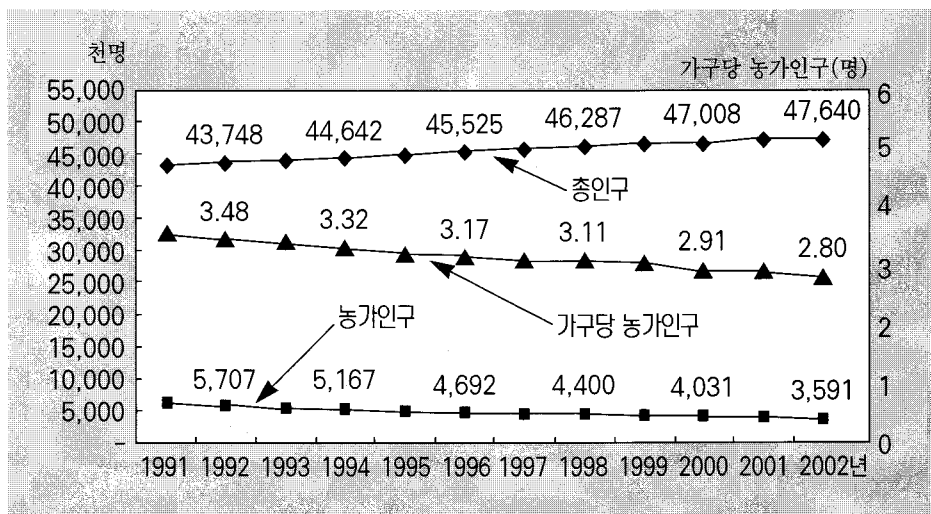
다. 특히 농업수입이 농업의 수입보다 많은 1종겸업농가의 감소(14.2%)가 2종겸업농가(9.4%)보다 크게 나타났다.

농가의 고령화로 인하여 60대인 농가경영주 비율이 37.4%(47만8천명)로 2001년보다 0.2% 늘었고 70세이상 경영주도 19.4%(24만8천명)로 1.2% 증가하여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세미만 경영주 비중은 43.2%로 전년보다 1.4% 줄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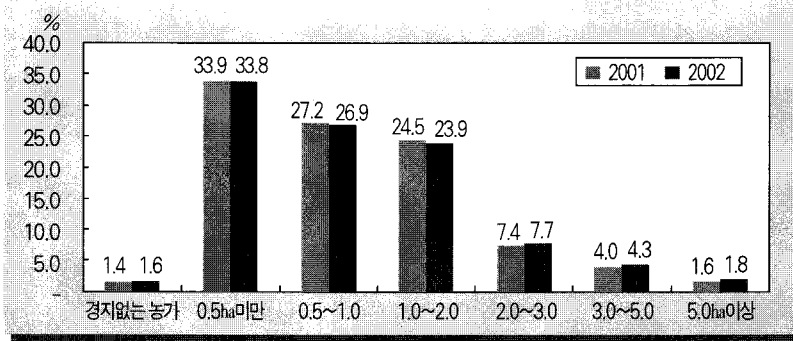
또 전체농가에서 남자경영주의 비율은 84.7%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높아져 60세 이상에서는 20%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경영규모를 살펴보면 전체농가 중 여전히 0.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33.8%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2ha이상의 규모화 농가도 13.8%로 전년보다 0.8%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. 또 경지있는 농가(1백26만1천가구)중 논만 경영하는 농가는 22만4천 가구(17.8%)로 나타났으며 밭만 경영하는 농가는 27만6천 가구(21.9%)로 나타났다. 논과 밭을 모두 경영하는 농가는 76만1천가구로 60.3%를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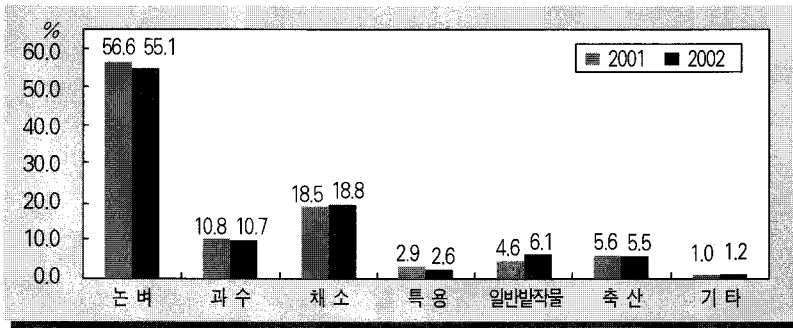
연도별 총인구, 농가인구 및 가구당 농가인구 추이



경지규모별 농가 분포



영농형태별 농가 분포



**영농형태**

농가의 주된 영농형태를 보면 논벼(55.1%), 채소(18.8%), 과수(10.7%) 순으로 나타났다. 이중 논벼농가는 전년대비 8.0%(6만1천가구)가 감소하였으며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일반 발작물이나 채소를 주로 하는 농가비중은 다소 증가함으로써 최근 어려워지는 쌀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. 또한 전체농가의 20%를 차지하는 40대이하 젊은 경영주의 경우 화훼농사 및 축산을 경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**농축산물 판매**

연간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농가가 67.2%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 판매한 농가도 7.6%로 전년대비 0.4% 늘어났다. 논벼 수확농가의 판매현황을 보면 전체 벼수확 농가(98만 가구)중 79.8%가 판매

를 하였으며 수확량의 절반이상을 판매한 농가는 32.0%로 나타났다.

연간 5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판매농가 34만5천 가구중에서는 축산위주 농가(41.3%)가 가장 높으며 채소(19.3%), 논벼(17.3%) 농가순으로 나타났다.

**정보화 현황**

컴퓨터(PC)를 보유한 농가비중은 총 농가(1백 28만 가구)의 29.4%인 37만6천 가구로 전년대비 3.4% 증가했으나 2002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PC 보유율인 60.1%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PC보유농가중 농업과 관련하여 PC를 활용한 농가는 PC보유농가의 14.8%인 5만6천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농업과 관련하여 PC를 활용한 농가는 대부분 농업정보수집(85.3%)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**농약정보**